

# 한정 명사구의 소유 의미에 관한 연구: 스페인어 자료를 중심으로\*

서소영  
(전북대학교)

**Seo, SoYoung. (2013). A Study on the Possessive Meaning in the DP in Spanish.**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1(3), 319-337. In Spanish, the possessive constructions can be expressed in various forms. In concrete, there are two types of the possessives adjectives: post-nominal position possessives (or a long form that is used after nouns) and pre-nominal position possessives (or a short form that is used before nouns). These possessives adjectives behave like ordinary adjectives that can be used in noun phrases. Like those of English, the possessives adjectives in Spanish are a way of indicating who owns or is in possession of something.

But the possessive constructions in Spanish is distinguished from the other language like English. That is to say, the definite determiner in Spanish can be used instead of the possessive adjectives. In these cases, two forms of the possessive adjectives can't be introduced. And this definite article requires the presence of the dative clitic.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perties of the possessive constructions with the definite article and to apply that reanalysis to the education of the grammar. In this study, I propose that the definite article with possessive meaning must be redefined. To addition, we suppose that the DP with the dative clitic is derived from the nominal possessive construction 'N + de + N'.

**주제어(Key Words):** 소유 구조(the possessive constructions), 소유 형용사(the possessive adjectives), 한정사(the definite determiner), 여격 접어(the dative clitic), 명사 소유 구조(the nominal possessive construction 'N + de + N').

---

\* 이 논문은 2013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1. 서론 및 목적

제 2외국어로 스페인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소유의미를 나타내는 한정 명사구는 상당히 생소한 구문으로 알려져 있다. 즉 영어에서와 달리 여격 접어를 수반, 한정 명사구를 통해 소유 의미를 나타내는 구문은 학생들에게는 다소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구문들이다. 이러한 구문들은 소유 의미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전치 소유 형과 같은 소유 형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즉 반드시 한정 명사구만을 사용하여 소유 의미를 표현한다. 스페인어에 전형적인 소유 형 즉 전치 소유 형과 후치 소유 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언급한 소유 형태를 사용하지 않고 한정 명사구만을 통해 소유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은 상당히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소유 명사구문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통사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격 접어를 수반하며 한정 명사구를 통해 소유 의미를 표현하는 구문들을 통사적으로 분석하고 새롭게 규명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여격 접어를 수반하는 한정사 소유 구문의 구문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전통 문법적 분석 및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언급한 한정사 구문에 관한 새로운 통사적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통사적 접근을 통해 우리는 한정사 구문이 어떠한 파생 과정을 통해 소유 의미를 표현하는지 그리고 이때 여격 접어는 왜 반드시 출현해야 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 2. 여격 접어를 수반하는 한정사 소유 구문

스페인어에는 전치 소유 형 혹은 후치 소유 형과 같은 소유 형태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유 관계를 표현하는 일련의 소유 구조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정관사를 수반하는 명사구를 들 수 있는 데 이때 언급한 명사구는 소유되는 대상으로 해석되며 반드시 여격 접어를 통해 소유자를 표현해준다. 이러한 구문들에 관한 통사적 분석을 제안하기 전에 먼저 관련 문장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기존 전통 문법적 분석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2.1. 구문적 특징 및 전통 문법적 분석들

여격 접어를 수반하며 한정 명사구를 통해 소유 의미를 전달하는 대표적 구문으로 다음과 같은 예문들을 들 수 있다.

- (1) a. Me duele la cabeza. '3SG (to) me hurt the head'  
 b. Te lavaré el pelo. '1SG (to) you (will)wash the hair'  
 (Lourdes. G. & Francesc R. U., 2008, p. 261)
- (2) a. Me lavo las manos. '1SG (to) me wash the hands'  
 b. Me corto el pelo. '1SG (to) me cut the hair'

위 예문 (1-2)에서 정관사를 수반하는 한정 명사구는 공통적으로 소유 의미를 나타낸다. 즉, 이러한 구문에서 한정 명사구는 소유 형을 결여하고 있지만 이를 수반할 때와 마찬가지로 '소유'를 뜻한다. 이때 여격 접어는 '소유자'를 지시해준다. 한정 명사구의 문법적 기능과 관련하여 구문들 간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즉, (1a)에서 한정 명사구는 주어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1b)에서는 직접 목적어로 이해된다. 주로 여격 접어를 수반하는 심리동사 구문에서 언급한 접어는 문의 주어기능을 수행하는 명사구와 의미적으로 소유관계를 설정한다.

- (3) a. Me duele la espalda.. '3SG (to) me hurt the back'  
 b. Me carraspea la garganta. '3SG (to) me clear the throat'  
 c. ¿Te pica la nariz? '3SG (to) you itch the nose?'

이러한 구문에서 주어 한정 명사구가 유도하는 정관사는 정확하게 소유 형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 소유 형이 등장하거나 여격 접어가 생략되면 문은 비문 처리된다.

- (4) a. \*Duele la cabeza. '3SG hurt the head'  
 b. \*Carraspea la garganta. '3SG clear the throat'  
 c. \*¿Pica la nariz? '3SG itch the nose'  
 d. \*Duele la/mi cabeza. '3SG hurt the/my head'  
 e. \*Carraspea la/mi garganta. '3SG clear the/my throat'  
 f. \*¿Pica la/tu nariz? '3SG itch the/your nose?'
- (Lourdes & Francesc, 2008, p. 263)

이와 같이 여격 접어를 수반하며 한정 명사구를 통해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 구문들은 의미적 측면에서 몇 가지 제약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구문에서 명사구는 '관계'의 의미를 내포한다. 즉 다른 총체와의 부분적 관계 혹은 전체적 관계를 필수적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관계' 명사 즉 "cabeza"('head'), "piernas"('legs'), "venas"('vein'), "pelo"('hair') 등은 부분으로 해석되는 요소들이며 여격은 전체로 해석되는 요소에 해당된다. 이러한 명사들 가운데에는 단계 즉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부분, 심리적 능력 혹은

은 육체의 속성들을 지시해주는 명사들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유대관계를 표현해주는 명사들이 있다. 이 가운데서 첫 번째 유형의 명사들은 또한 필연적 소유 관계를 나타내주기도 한다. “연적 소유관계”를 표현하는 문은 다음 두 가지 형태로 사용된다. 여격 접어와 주어 간에 소유관계를 설정하는 경우와 여격 접어와 직접 목적격 간에 소유 관계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의미적 측면 이외에도 통사적 측면에서 이러한 구문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정리 된다. 소유자와 피소유자가 존재하는 필연적 소유 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여격 접어는 동사에 하위범주화 된다. 즉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다. 어떠한 소유형태 즉, 전치 소유 형, 후치 소유 형, ‘명사 + 전치사 de+ 명사’ 구조도 사용될 수 없다. 소유자는 항상 여격 접어를 통해 표현된다. 소유자는 동사와 수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스페인어에서 소유의미로 사용되는 정관사에 관하여 전통문법에서부터 다양하게 연구되어왔다. RAE (1973)에서는 여격 접어가 소유 의미를 부여해주는 요소라고 정의하였다. 관련 예문은 다음과 같다.

- (5) a. He dejado mi gabán en casa.  
 ‘(I) have put my overcoat at home’  
 b. Sacó su pañuelo del bolso.  
 ‘(He) take out his handkerchief from the bag’
- (6) a. He dejado el gabán en casa.  
 ‘(I) have put the overcoat at home’  
 b. Sacó el pañuelo del bolso.  
 ‘(He) take out the handkerchief from the bag’
- (7) a. Me he dejado el gabán en casa.  
 ‘(I) (to) me have put the overcoat at home’  
 b. Se sacó el pañuelo del bolso.  
 ‘(He) (to) him take out the handkerchief from the bag’
- (RAE, 1973, 428)

위 세 유형의 문장 중 예문 (5) 보다는 예문 (6)이 선호된다. 이 가운데 (7) 유형의 구문이 가장 좋은 문장들로 받아들여지며 사용된다. 이러한 자료들에 근거하여 RAE (1973)는 여격 접어가 소유 의미를 부여해주는 요소로 분석한다.

다른 한편으로 Fernández Ramírez (1951)은 스페인어의 관련 구문들에서 설정되는 소유, 소속 의미는 두 요소 즉 정관사와 그의 선행사 간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이와 같은 여격 사용은 소유 형 대신에 도입되는 관사의 출현과 밀접하게 연

결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에 따르면, 소속, 소유 개념은 접어와 정관사로 이루어지는 두 개의 단위 간의 관계를 통해서 표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분석들은 왜 정관사 형태가 소유 의미를 내포하는지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또한 여격 접어와 정관사 간의 관계를 통사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문제점 역시 수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통사적 분석을 제안하고자 한다.

## 2.2. 한정 명사구가 지니는 소유 의미에 대한 통사적 분석

전통문법에서 소유는 양도 불가능 소유(*possession inalienable*)와 양도 가능한 소유(*possession alienable*)로 분류된다. 정관사가 소유를 의미하는 구문과 관련된 이러한 의미적 측면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Chappell & McGregor (1996)은 양도 불가능 소유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공간적 특징의 관계, 인간 신체의 일부분, 유사부류 관계 (친인척 관계), 생명을 위해 필수적 총체 등이 이러한 소유 개념에 해당된다고 본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의미적 개념들에 대해 Langacker (1995)는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의한다. 즉, 소속, 소유 개념 (예를 들어, *his Porsche*), 친인척 개념(*your aunt*), 한 총체의 일부분(*my knee*) 등으로 나뉜다. 이와 같은 기존 의미적 분류에서 서로 겹치는 내용은 다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유사부류, 친인척 관계들, 그리고 둘째, 총체의 일부분 관계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소유 개념 가운데 여격접어는 양도 불가능 소유 구문에 사용된다. 관련 예문은 다음과 같다 (Sánchez, 2007).

- (8) a. El gato le arañó la cara. 'The cat (to) him scratched the face'
- b. A Juan le duele el brazo. '3SG to Juan (to) him hurt the arm'
- c. El gato arañó su cara. 'The cat scratched his face'
- d. ??El gato le arañó su cara. 'The cat (to) him scratched his face'
- e. \*Mi cabeza duele. 'My head hurt'
- f. \*Me duele mi cabeza. '3SG (to) me hurt my head'

(Sánchez, 2007, 153-155)

관련 예문들을 Demonte (1988)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 그녀에 따르면 외현적 소유 형은 양도 불가능 소유를 뜻할 때 생략 가능한 반면, 양도 가능한 소유의 경우에는 언급한 소유 형이 사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표현 될 수 있다.<sup>1)</sup>

1) 위 예문에서 % 표시는 문장이 불가능하거나 비문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문체적으로 어색하며 잘 사용되지 않는 예문들을 가리킨다.

- (9) a. A Juan se le quemó la/ \*su mano.  
 '3SG To Juan (to) him burned the/his hand'  
 b. A Juan se le quemó la/ %su casa.  
 '3SG To Juan (to) him burned the/his house'
- (10) a. Carlos me susurraba dulzuras al/ a \*mi oído.  
 'Carlos (to) me muttered sweetness to the/ to my ear'  
 b. Carlos me cantaba canciones en la/ % mi verja.  
 'Carlos (to) me sang songs in the/ my grille'
- (11) a. Pedro se lava los/ \*sus ojos cuando se levanta.  
 'Pedro (to) him wash the/his eyes when (to) him wake up'  
 b. Se sujeta su ojo de cristal el teniente don Lauro Rovirosa.  
 '(He) (to) him hold his eye of crystal the lieutenant Mr. Lauro Rovirosa'  
 (Valle Inclán, Fernández Ramírez, 1951, 194)
- (12) a. La/ ??mi cabeza no me funciona bien hoy.  
 'The/my head no (to) me work well today'  
 b. La/ %mi pata de palo se me enganchó en la escalera.  
 'The/my leg of stick (to) me hooked in the stair'  
 (Demonte, 1988, 9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페인어에서 여격 접어는 한정사구 목적어와 동시 사용됨으로써 소유를 의미한다. 다른 일반 구문에서와 달리 전치 소유 형은 사용되지 않는다. 스페인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러한 구문을 한국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이 습득하고자 할 때 상당히 난해한 구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즉 학생들은 왜 이러한 구문에서는 전치 소유 형을 사용하지 않고 접어 및 정관사가 등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제안들을 가정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관련 구문에서 동사 뒤에 나타나는 한정사구는 통사적으로 소유 명사구 파생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여격 접어를 수반하며 한정사구를 목적어로 취하는 소유 구문에서 언급한 한정 명사구는 스페인어의 '명사 + de + 명사' 형태의 소유 명사구 구조로부터 파생된다는 점을 가정하고자 한다. 즉, 우리의 관점 하에서 볼 때 소유 의미를 내포하는 한정사구는 스페인어의 대표적 소유 명사구 구조에 해당하는 구조를 통해 파생된다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소유 명사 구문의 구조를 살펴보고 최근 생성 문법 내에서 소유 명사 구문이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지 분석해보기로 한다.

소유 명사구 구조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최근 생성 문법적 관점 내에서 가장 일반화된 제안은 소유 명사구 구조는 소유 동사 구조와 병행관계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Abney, 1987,

Szabolcsi, 1994, Zamparelli, 1993, Zabala & Odriozola, 1996). 즉, 이는 절과 명사구 간에 구조적 상응 관계가 설정된다는 관점에 기초한다.<sup>2)</sup> 이와 같이 소유 동사 tener/have 를 내포하는 구문과 전치사 de/of를 수반하는 명사구 구문 간에 설정되는 병행관계에 관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Kayne, 1993, 1994, Den Dikken, 1995, Bennis, Corver & Den Dikken, 1996). 이러한 기존 분석들은 각각 방법론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지니지만, 소유 명사구와 소유 동사 구문 간에 상응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동일 구조 내에서 분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서로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볼 때 영어 have/tener 동사 구문으로 대체 가능한 ‘명사 + of/de + 명사’ 소유 명사구는 동일하게 분석될 수 있다. 따라서 소유 명사구 구조는 결국 소유 동사 구문과 동일 선상에서 이해된다.<sup>3)</sup> 그렇다면 소유 명사구구조와 병행관계를 이루는 소유 동사 구문은 어떻게 분석되는가?

파생 구조에 있어서 소유 명사구 구조와 연계성을 지니는 소유 동사 구문은 Freeze (1992)를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분석되어 왔다. Freeze는 have 동사를 결여하는 몇몇 언어들 특히 인도어 자료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언어들에서 영어의 have 의미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기 시작했다. 인도어의 경우 존재 be동사에 장소 전치사가 부합되어 나타나서 have 의미를 표현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Freeze는 영어의 have 동사는 ‘be + 추상적 장소 전치사’가 부가되어 발현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연구는 Den Dikken (1995, 1997)에 이르러 헝가리어와 같은 다른 언어들 현상에 근거하여 ‘여격접어 + 추상적 전치사’ 발현으로 정의되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동안 전통문법이나 기능 문법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2) 소유 동사 구조와 소유 명사구 구조 간에 병행관계가 설정된다는 관점 하에서 다음과 같이 소유 명사 구조에서도 명사 이동이 일어난다는 분석이 제기되어 왔다.

(i) a. Los [animalesi [de los [INFLP forasteros [INFL ti]]]].

‘The animals of the strange’

b. El [gatoi [de [INFLP la niña [INFL ti]]]].

‘The cat of the girl’

c. El [libroi [de [INFLP Juan [INFL ti]]]].

‘The book of Ju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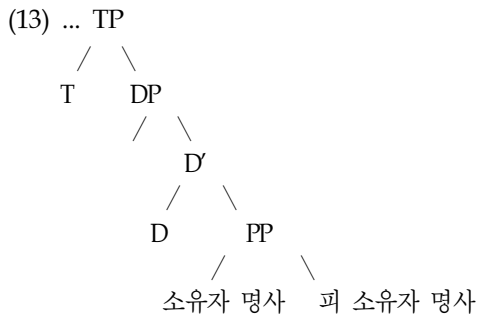
(Gutiérrez Ordóñez, 1986, p.261, Suárez, 1990, pp.335, 350)

위 예문이 보여주듯이, 스페인어의 ‘명사 + de + 명사’ 소유 명사구구조에서 피 소유자 명사는 술부 지정어 위치로의 이동을 통해 파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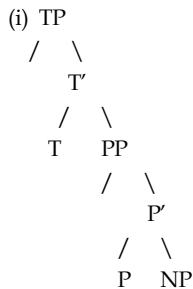
3) 실제로 ‘명사 + de/of + 명사’ 구조에서 사용되는 전치사 de/of와 소유 동사 tener/have 모두 일반 전치사나 일반 동사로부터 분명하게 구별되며 공통적으로 일련의 연계사로서 기능을 수행한다는 관점이 언어사를 통해서 계속 지적되어 왔다 (Bach, 1967, Alarcos Llorach, 1984, Hawkins, 1981, Kayne, 1993, 1994). 특히, Müller (2001)에 따르면, 이와 같이 소유 명사구 구조에서 나타나는 전치사 de는 다른 일반 전치사가 지니는 소유의 전형적 의미로부터 다소 구별되는 좀 더 추상적인 의미를 실현한다. 즉 추상적 요소로서 전치사 de는 근본적 인지과정(cognitive primitive)으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치사 de는 소유개념 보다 더 근본적인 인지 현상(basic cognitive phenomenon)을 표현해주는 전치사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왔던 have 동사가 일반 타동사와 다르다는 주장들 (Benveniste, 1966, Bach, 1967...etc.) 을 통사적으로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분석 내에서 소유자와 피소유자는 추상적 전치사구 내에서 이동을 통해서 파생된다. 실제로, Freeze (1992) 는 장소를 나타내는 문, 존재 문 그리고 소유 문은 모두 동일한 구조를 내포한다는 점을 가정한다. 그에 따르면, '장소'와 '존재' / '소유' 등의 해석상의 차이는 파생과정에서 도출된다. 즉, 장소 문에서는 Tema가 주어 위치로 이동하는 반면 존재 문이나 소유 문에서는 존재를 나타내는 명사구나 소유자가 이동함으로써 관련 구문을 형성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분석 내에서, 소유 문의 소유자는 일종의 '장소 논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4)

소유 구문 구조에 대한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유 의미를 내포하는 한정 명사구 역시 일련의 소유 명사구 구조로부터 파생된다는 점을 가정하고자 한다. 즉 우리의 관점 하에서 볼 때 여격 접어를 수반하며 소유를 뜻하는 한정 명사구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소유 명사구 파생 구조를 지닌다는 것이다. 스페인어의 일반 소유 명사구 구조인 '명사 + de + 명사' 형태와 접어를 수반하는 한정 명사구 소유 구문 간의 기본적 차이는 후자의 경우 소유자 명사구가 음성적으로 실현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일반적인 소유 명사구 구조와 달리 여격 접어를 수반하는 한정사 소유 명사구문에서는 소유자 명사가 외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4) Freeze (1992)가 제안하는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 구조에서 우리는 술부를 유도하는 범주로 추상적 전치사 구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소유 동사 tener/have 파생 구조에서 추상적 전치사가 존재한다는 견해에 근거한다 (Freeze, 1992, Den Dikken, 1995, 1997). 또한 소유 명사구 구조는 소유 동사 구조와 병행관계를 형성한다는 관점에 기초한다 (Abney, 1987, Szabolcsi, 1994, Zamparelli, 1993, Zabala & Odriozola, 1996). 이러한 추상적 전치사 PP는 소유명사와 피소유 명사를 내포하며 이로부터 명사 이동이 실현된다. 이때 언급한 추상적 전치사 P는 한정사 D에 부가되고 이를 통해 명사구내에 소유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추상적 전치사 P는 그 속성에 있어서, 소유 동사 have/tener 구문과 마찬가지로, 장소, 처소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소유 구문이 처소 의미를 지니는 추상적 전치사 P를 내포한다는 가정은 또한 존재 be를 통해 소유 구문을 표현하는 한국어 자료에 근거한다. 이미 언급한 바대로, 소유 동사 have/tener 파생과정은 존재 be 동사에 추상적 전치사가 부가된다고 보거나 (Freeze, 1992), 여격접어에 추상적 전치사가 부가되어 발현된다고 본다 (Den Dikken, 1995, 1997). 이러한 절에 대한 분석은 소유 명사구 구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소유 파생 과정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존재 동사를 통해 소유의 의미를 표현하는 한국어 자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지하는 바대로, 한국어에서 소유 구문은 여러 형태로 표현가능하다. 구명철 (2004)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한국어에서 소유관계는 '갖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유동사뿐만 아니라, '있다'의 뜻을 지니는 존재동사로 표현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갖다' 동사보다 '있다'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다.

- (14) (a) 그는 한국어사전을 한 권 가지고 있다.  
 (b) 그는 한국어사전이 한 권 있다.
- (15) (a) 그는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소유하고] 있다.  
 (b) 그는 아파트가 한 채 있다.
- (16) (a) <sup>?</sup>이 집은 계단을 많이 가지고 있다.  
 (b) 이 집은[집에는] 계단이 많이 있다.
- (17) (a) <sup>?</sup>낙지는 다리를 8개(를) 가지고 있다.  
 (b) 낙지는 다리가 8개 있다.
- (18) (a) <sup>??</sup>나는 딸을 하나 가지고 있다.  
 (b) 나는 딸이 하나 있다.
- (19) (a) <sup>??</sup>빌레펠트는 약 300,000명의 주민을 가지고 있다.  
 (b) <sup>?</sup>빌레펠트에는 약 300,000명의 주민이 있다.  
 (구명철, 2004, p.182)

결과적으로 한국어에서는 적어도 '갖다' 동사로 표현될 수 있는 대부분의 소유관계가 존재동사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 이때 소유자는 주격, 여격 접어형태 모두 수반할 수 있다.

- (20) a. 철수에게 딸이 둘 있다  
 b. 영희에게 책이 있다.  
 c. 나에게 꽃이 있다.
- (21) a. 철수가 딸이 둘 있다.  
 b. 영희가 책이 있다.  
 c. 내가 꽃이 있다.

즉, 한국어는 소유 구문이 존재 동사로부터 파생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파생과정에 있어서 소유자는 다양한 격 형태를 지닌다. 이러한 다양한 격 형태와 관련하여 박재희 (2012)는 주격 '-가'를 지니는 경우 소유자는 문의 주어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가정한다.

- (22) a. 영수-에게 좋은 화초-가 있다.  
 b. 영수-가 좋은 화초-가 있다.  
 (박재희, 2012, pp.45, 49)

Gerdtts & Youn (1988), 연재훈 (1996) 분석에 근거하여, 박재희 (2012)는 소유자 논항이 여격 주어 구문의 실질적인 주어이므로 주격조사와 결합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본다. 다시 말해, 소유 술어 구문의 소유자 논항이 주격 조사와 결합하는 이유는 이 논항이 문의 주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격, 주격 등 여러 형태의 격조사를 수반하는 소유자 논항의 의미역은 무엇인가? 박재희 (2012)에 따르면, 피소유자는 술어의 영향을 받아 이동 또는 상태 변화를 겪는 개체이므로 대상 (theme)의 의미역을 부여받는 반면 소유자는 처소의 의미역을 부여받는다고 가정한다. 소유자 논항에 관한 이러한 의미역 분석은 기본적으로 박양규(1975) 분석에 기초를 둔다. 그에 따르면, 소유 술어 구문에서 소유자 논항이 여격 조사를 수반하는 이유는 언급한 논항이 유정체언이고 그 의미역이 처소이기 때문이다. 즉, 다음 예문에서와 같이 유정 체언을 무정 체언으로 바꿀 경우 처격조사 '-에'로 바뀌어도 소유 의미에는 변화가 없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소유자 논항이 처소 의미역을 부여받는다고 본다.

- (23) a. 영수-에게/\*에 좋은 화초-가 있다.  
 b. 학교에/\*에게 좋은 화초-가 있다.  
 (박재희, 2012, pp.48)

이러한 관점 내에서 볼 때, (23a, b) 예문은 유정체언과 무정체언의 구별 없이 처소로 분석되지만 서로 격 표지가 다른 이유는 (23a)에서 소유자 논항은 유정체언인 반면 (23b)에서는 무정체언이기 때문이다. 이는 유정 체언과 결합하는 처격조사는 ‘-에게’ 형태로는 나타나지만, ‘-에’ 형태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양규, 1975, 서정수, 1996).

지금까지 살펴 본 한국어 자료들을 스페인어와 같이 존재 be를 통해 소유구문을 나타내지 않는 언어들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소유 동사 tener 파생에 있어서 ‘존재 be + 처소를 의미하는 추상적 전치사 P’의 부가 과정을 가정해볼 수 있다. 절과 명사구 간에 구조적 상응 관계가 설정된다는 관점에 근거해서 볼 때 (Abney, 1987, Szabolcsi, 1987, 1994, Zamparelli, 1993, Zabala & Odriozola, 1996, Kayne, 1993, 1994, Den Dikken, 1995, Bennis, Corver & Den Dikken, 1996), 이러한 부가과정은 소유 명사구 구조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동사가 존재하지 않는 소유 명사구 구조 DP에서는 술부를 유도하는 추상적 전치사 P가 한정사 D에 부가됨으로써 명사구에 소유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이때 도입되는 P는 장소, 처소를 의미하는 추상적 전치사로 정의되며 여기서 파생되는 소유자는 처소의 의미를 그리고 피소유자는 대상의 의미를 지닌다. 즉 추상적 전치사구 PP 내에서 파생되는 소유자와 피소유자는 술부 내에서 둘 간의 소유 관계를 형성한다. 스페인어의 일반적 소유 명사구 형태인 ‘명사 + de + 명사’ 구조에서는 이러한 소유자와 피소유자 명사가 외현적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소유 간접 여격을 수반하는 한정 명사구에서 소유자는 음성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외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소유 명사의 속성과 관련하여 우리는 Demonte (1988) 분석에 기초하여 일종의 PRO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Demonte (1988)에 따르면 소유 명사구 안에 존재하는 소유자 PRO는 동사 앞에 있는 여격 접어와 동 지표를 이룬다. 즉, 소유자 명사는 DP의 지정어로 이동하여 소유 해석을 받으며 동사 앞에 위치하는 접어와 동 지표를 이룬다. 이와 같이 접어와 소유자 명사 PRO 간에 지배 관계가 설정된다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Folgar (1993)의 분석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된다. 그에 따르면 여격접어는 지배 받는 보어로 정의된다. 이러한 관점은 Chomsky (1981)의 지배 결속 이론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Chomsky (1981)에 따르면 접어는 동사구 VP내의 핵 V에서 위치하며 목적어 위치와 동 지표를 이룬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Demonte (1988)는 소유 접어와 같은 접어들은 INFL에 나타날 수 있고 피 소유 명사구가 내포하는 NP의 지정어에 위치하는 비어있는 PRO 범주와 결속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볼 때 소유 접어와 같은 접어들은 목적어 혹은 목적어, 주어와 동 지표를 이룬다. 관련 예문은 다음과 같다.

- (24) a. Te limpié los zapatos. ‘(I) (to) you cleaned the shoes’  
 b. Me limpié los zapatos. ‘(I) (to) me cleaned the shoes’  
 (Jover, 1996, p.142)

위 예문에서 (24a)는 접어가 목적어와 동 지표를 이루는 경우이고, (24b)는 목적어, 주어와 동 지표를 형성하는 구문에 해당된다. 즉, 우리의 관점 하에서 볼 때 한정사구가 지니는 소유 의미는 여격 접어로 인해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정사내에서 소유 구문 파생과정을 겪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여기서 사용되는 여격 접어는 음성적으로 비어있는 소유자 논항이 해석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스페인어에서 여격 접어 없이 정관사만 등장하여 소유를 의미하는 구문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소유 의미로 정관사를 사용하는 것은 의미상에 있어서 모호성이 없을 때만 사용한다 (Company Company, 2001). 즉 소유자가 문에서 쉽게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 관련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5) a. Movi6 la cabeza. '(He) moved the head'  
 b. No siento las piernas. '(I) no feel the legs'  
 c. Juan movi6 la/ \*su cabeza. 'Juan moved the/his head'  
 d. Juan movi6 la/ \*su silla. 'Juan moved the/his chair'  
 (Lourdes. G. & Francesc R. U., 2008, p. 261)

여기에서 목적격을 유도하는 정관사는 '소유자'에 상응하는 요소로 해석되는 주어로 이해된다. 즉 정관사 DP 내에 있는 음성적으로 비어있는 소유자 논항은 문의 주어를 통해 해석 받는다. 이러한 경우 여격 접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여격 접어가 소유의 의미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사 DP가 소유 명사구 DP 구조로부터 파생됨으로써 소유 의미를 나타낸다고 본다.

이와 같이 여격 접어가 정관사 DP 구문 내에 존재하는 소유자 논항을 지시해준다는 관점은 스페인어의 일반 소유 명사구와 정관사 소유 명사 구문 간에 존재하는 의미적 측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준다. 즉, 일반 소유 명사구 형태인 '명사 + de + 명사' 구조와 정관사 소유 명사구 구문이 동일 구조에서 파생된다고 가정할 때 제기되는 문제는 언급한 두 형태의 명사 구문 간에 존재하는 의미적 차이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관사 소유 구문이 '명사 + de + 명사' 소유 명사구 구문과 의미적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여격 접어의 출현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다. 즉, 여격 접어가 사용됨으로써 정관사 소유 명사구 구문은 '명사 + de + 명사' 소유 명사구 구조가 지니는 이중적 의미로부터 구별된다. 이러한 의미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유 개념은, 이미 언급한 바대로, 유사부류, 친인척 관계들을 표현해주는 것과 총체의 일부인 관계들로 분류된다 (Langacker, 1995). 스페인어의 소유 명사구 구조에서 총체와 그 일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명사 + de + 명사' 구조와 전치 소유 형 구조라고 할 수 있다 (Gael, 2006)). 관련 예문은 다음과 같다.

- (26) a. El tobillo de Pedro. 'The ankle of Pedro'  
 b. La tobillera de Pedro. 'The ankle support of Pedro'  
 c. Las ramas del árbol. 'The branch of the tree'  
 d. Los cuervos del árbol. 'The raven of the tree'  
 e. La honradez de Pedro. 'The honesty of Pedro'  
 (Gael, 2006, p.1686)
- (27) a. Su brazo. 'His arm'  
 b. Tu rodilla. 'Your knee'

이러한 명사구 구조를 통해 표현하는 소유 의미와 접어를 수반하는 구문에서 한정사가 지니는 소유 의미 간의 의미적 차이는 다음 대조를 통해 잘 나타난다 (Gael (2006).

- (28) Cuando golpeabas la cabeza del Barbas contra las piedras, también lo estabas...¿O no?  
 'When hit the head of the Barbas against the stones, too it was...or no?'
- (29) Cuando le golpeabas la cabeza al Barbas contra las piedras, también lo estabas...¿O no?  
 'When hit the head to the Barbas against the stones, too it was...or no?'
- (Gael, 2006, p.1687)

위 예문들 중 '명사 + de + 명사' 구조로 소유를 뜻하는 구문에 해당하는 (28)은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즉, 'Barbas의 머리'(la cabeza del Barbas)는 먼저, Barbas의 신체 일부로서 머리를 뜻할 수 있고 또한 Barbas에 의해 만들어진 점토 인형의 머리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접어를 수반하며 정관사를 통해 소유를 의미하는 예문 (29)의 경우 단지 첫 번째 해석만을 허용한다. 이와 같이 여격접어는 소유 명사구 DP안에 있는 소유자와 동 지표를 형성함으로써 Barbas의 신체 일부로서 머리를 의미하도록 해준다. 이러한 구조에서 필수적으로 출현하는 여격 접어는 이와 같이 의미의 이중성, 모호성이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여격 접어는 소유자가 문에서 쉽게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여격 접어의 문법적 기능에 따라 스페인어에서 대명사가 필연적 소유를 가리킬 경우 전치 소유 형 구문 보다 여격 접어를 수반하는 구문이 더 많이 사용된다 (Pérez Vázquez, 2007). 즉, 여격 접어는 정관사 DP가 이중성 없는 소유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이므로 필수적으로 출현한다. 즉 여격 접어가 나타나지 않으면 정관사도 생략 가능하다. 관련 예문은 다음과 같다.

- (30) a. \*Me comió chocolate. ‘3SG (to) me ate chocolate’  
 b. Comió chocolate. ‘3SG ate chocolate’  
 c. Me comió el chocolate. (= my chocolate)  
 ‘3SG (to) me ate the chocolate. (= my chocolate)’  
 (Pérez Vásquez, 2007, p.14)

즉, 예문 (30)에서 볼 수 있듯이, 소유 여격 접어가 출현하는 구문에서는 반드시 한정사가 동반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여격을 수반하는 한정사 소유 명사구 구문이 의미적 이중성을 결여함으로 인해 한정 명사구가 여격 접어와 함께 사용되는 구문에 일반 소유 명사구 문인 ‘명사 + de + 명사’ 구문이나 전치 소유 형 구문은 올 수 없다. 즉 여격 접어를 수반하는 소유 구문에서 언급한 일반 소유 명사 구문은 사용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양도 불가능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명사들은 전치 소유 형이나 일반 소유 형태 등 어떠한 경우도 허용하지 않으며 단지 정관사 형태만을 사용한다.

- (31) a. \*Se lavó el pelo de Pilar. ‘3SG (to) him washed the hair of Pilar’  
 b. \*Se lavó su pelo. ‘3SG (to) him washed his hair’

이와 같이 여격 접어를 수반하는 구문에서 정관사 DP를 일반 소유 명사구 ‘명사 + de + 명사’ 구문이나 전치 소유 형 구문이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처소 의미를 수반하는 소유자 논항이 여격 접어와 지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즉 DP 내에서 PRO 형태로 존재하는 소유자는 여격 접어와 동 지표를 이름으로써 소유자로 해석 받게 된다. 그러나 일반 소유 명사구문과 같이 소유자가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여격 접어는 필요 없게 된다. 따라서 여격 접어와 일반 소유 명사구문은 동시에 나타날 수 없다. 즉, Matsui (2009)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구문들에서 여격 접어는 술부 내부 논항의 소유자를 지시해준다. 따라서 이와 같이 소유 여격 접어를 수반하는 구문에서 전치 소유 형이나 ‘명사 + de + 명사’ 명사구 사용은 잉여적이고 비문 처리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심리동사 구문 등 정관사가 소유 의미를 나타내는 구문에서 여격 접어는 필수적으로 출현한다. 그리고 일반 동사 구문에서도 정관사가 소유 의미를 지닐 경우 여격 접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선호된다. 이와 같은 소유 구문에서 여격 접어가 주로 나타나는 이유는 여격 접어가 DP내에 있는 처소 의미역을 수반하는 소유자 논항과 동 지표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일반 소유 명사 구문이 지니는 의미적 이중성은 사라지게 된다. 즉 ‘-에게’로 번역되는 여격이지만 실제로는 소유자를 지시하며 문에서 주어 혹은 목적어로서 기능을 수행한다.5)

### 3. 결론

스페인어에는 소유 구문을 유도하는 전치 소유 형, 후치 소유 형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구문들에서 한정 명사구는 여격 접어와 함께 문을 소유 구문으로 유도한다. 이러한 구문들에서 언급한 전치 소유 형이나 후치 소유 형 같은 일반적 소유 형태들은 사용될 수 없다. 이러한 구문적 특성으로 인해 스페인어를 제 2 외국어로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혼란을 겪게 된다. 또한 관련 구문들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정 명사구가 어떠한 파생과정을 통해 소유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지 통사적으로 연구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여격 접어를 수반하는 한정 명사구가 문에서 소유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때 한정 명사구 DP가 통사적으로 소유 명사구 파생과정을 거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즉 언급한 한정 명사구는 '명사 + de + 명사' 형태의 일반 소유 명사구 구조로부터 파생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기본적으로 절과 명사구 간에 구조적 상응 관계가 존재한다는 분석에 근거한다 (Abney, 1987, Szabolcsi, 1987, 1994, Zamparelli, 1993, Zabala & Odriozola, 1996, Kayne, 1993, 1994, Den Dikken, 1995, Bennis, Corver & Den Dikken, 1996).

스페인어의 일반 소유 명사구 구조에 해당하는 '명사 + de + 명사' 구조와 접어를 수반하는 한정 명사구 소유 구문은 동일한 파생 구조를 지니며 두 구조 간에는 단지 형태론적 차이만 존재할 뿐인 것으로 가정했다. 즉, 전자의 경우와 달리 후자의 경우 추상적 전치사구 PP에 있는 소유자 명사구가 외현적으로 실현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외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소유 명사의 본질적 속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Demonte

5) 처소 의미를 내포하는 소유자 논항을 지시해주는 이러한 여격 접어는 그 의미적 속성에 있어서 또한 event 자질을 내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Pérez Vázquez, 2007). 이러한 측면은 소유 의미로 사용되는 여격 접어가 지적 인지 동사들(recordar, pensar, soñar)과 함께 사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관련 예 문은 다음과 같다.

- (i) a. \*Me ha soñado los ojos. '(to) me have dreamed the eyes'
- b. Ha soñado con mis ojos. 'Have dreamed with my eyes'
- (ii) a. Me ha visto los ojos. '(to) me have seen the eyes'
- b. Me ha examinado los ojos. '(to) me have examined the eyes'
- c. Le ha leído en los ojos el pensamiento.

'(to) him has read in the eyes the thinking'

(Pérez Vázquez, 2007, p.15)

Pérez Vázquez (2007)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지적 인지 동사들은 [-telicity] 술부에 해당된다. 이러한 [-telicity] 술부 개념은 Matthew (2006)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러한 동사와 접어의 event 속성 관련 문제는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분야와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다음 연구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1988) 분석에 기초하여 이를 일종의 PRO 형태로 설정할 것을 가정했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우리는 소유자 명사는 DP의 지정어로 이동하여 소유 해석을 받으며 동사 앞에 위치하는 접어와 동 지표를 이룬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서 추상적 전치사 P는 한정사 D에 부가되고 이를 통해 명사구 내에 소유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유 구문에서 여격 접어가 주로 나타나는 이유는 여격 접어가 DP내에 있는 처소 의미역을 지니는 소유자 논항과 동 지표를 이루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여격 접어 출현으로 인해 일반 소유 명사 구문이 지니는 의미적 이중성은 사라지게 된다. 한정사 구문에 관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통사적 분석은 또한 여격 접어와 일반 소유 명사구문이 동시에 사용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즉, 여격 접어를 수반하는 구문에서 정관사 DP를 일반 소유 명사구 '명사 + de + 명사' 구문이나 전치 소유 형 구문으로 대체할 수 없는데 이는 처소 의미를 수반하는 소유자 논항이 여격 접어와 지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DP 내에서 PRO 형태로 존재하는 소유자는 여격 접어와 동 지표를 이룸으로써 소유자로 해석 받게 된다. 하지만 일반 소유 명사구문과 같이 소유자가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여격 접어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 참고문헌

- 구명철. (2004). 소유관계와 존재동사- 존재동사에 의한 소유관계의 표현. *독어교육*, 29, 173-195.
- 박양규. (1975). 소유와 소재. *국어학*, 3, 93-117.
- 박재희. (2012). 여격 주어 구문의 갈래와 형성. *어문론총*, 56, 41-69, 연재훈. (1996). 국어 여격주어 구문에 대한 범언어적 관점의 연구. *국어학*, 28, 241-275.
- 서정수. (1996). *국어문법*.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 Abney, S. (1987). *The English noun phrase in its sentential aspec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T. Boston, MA.
- Alarcos L, E. (1984). *Estudios de gramática funcional del Español*, Madrid: Editorial Grados.
- Bach, E. (1967). HAVE and BE in English syntax, *Language*, 43, 462-485.
- Bennis, H., Corver, N., & Den Dikken, M. (1996). (A)symmetries in predication and the meaning of structure, *GLOW*, 36, 18-19.
- Benveniste, E. (1966)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Gallimard.
- Chappell, H., & McGregor, W. (1996). Prolegomena to a theory of inalienability. In H. Chappell & W. McGregor (Eds.), *The grammar of*



- inalienability. A typological perspective on body parts terms and the part-whole relation* (pp. 3-30), Berlin: Mouton de Gruyter.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Dordrecht.
- Company Company, C. (2001). Gramaticalización, debilitamiento semántico y reanálisis. El posesivo como artículo en la evolución sintáctica del español, *Revista de Filología Española*, 81(1-2), 49-87.
- Demonte, V. (1988). El artículo en lugar del posesivo y el control de los sintagmas nominales, *NRFH*, XXXVI, 1, 89-108.
- Demonte, V. (1994). La semántica de los verbos de cambio, In A. Alonso (Eds.), *II Encuentro de Lingüistas y Filólogos de España y México* (pp. 535-563), Salamanca: Ediciones de Universidad Salamanca.
- Den Dikken, M. (1995). Copulars, *GLOW*, 34, 20-21.
- Den Dikken, M. (1997). The syntax of possession and the verb HAVE, *Lingua*, 101, 129-150.
- Ferenández Ramírez, S. (1951). Gramática española, T.1: Los sonidos, el nombre y el pronombre, *Revista de Occidente*, Madrid.
- Folgar, C. (1993). Diacronía de los objetos directo e indirecto, *Anejo 37 de verba*, Santiago de Compostela, Universidad de Santiago de Compostela.
- Freeze, R. (1992). Existentials and other Locatives, *Language*, 68, 553-595.
- Gael, V. (2006). Las relaciones posesivas y la estructura argumental de la cláusula, *Actas del XXXV Simposio Internacional de la Sociedad Española de Lingüística*, Universidad de León.
- Gerds, D., & Cheng, Y. (1988). Korean psych constructions: Advancement or Retreat?, *The 24th Annual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24 (pp. 155-175).
- Gutiérrez Ordóñez, S. (1986). *Variaciones sobre la atribución*, León: Universidad de León.
- Hawkins, R. (1981). Towards an account of the possessive constructions: NP's and the N of NP, *Journal of Linguistics*, 17, 247-268.
- Jover, B. (1996). Dativo de interés, dativo aspectual y las marcas de aspecto perfectivo en español, *Verba*, 23, 121-146.
- Kayne, R. (1993). Toward a modular theory of auxiliary selection, *Studia Linguistica*, 47, 3-31.
- Kayne, R. (1994). *The antisymmetry of syntax*, Cambridge: MIT Press.

- Langacker, W. (1995). Possession and Possessive Constructions. In R. Taylor & E. MacLaury (Eds.), *Language and the cognitive construal of the world* (pp. 51-79), Berlin: Mouton de Gruyter.
- Lourdes, G. & Francesc, U. (2008). La alternancia entre artículo y posesivo en la adquisición de ELE, In M. Inés, V. Manuel & R. Ramón (Eds.), *Actas del XXXVII Simposio Internacional de la Sociedad Española de Lingüística (SEL)* (pp. 261-269), Pamplona: Servicio de Publicaciones de la Universidad de Navarra.
- Matthew, H. (2006). *Stage-level/ Individual-level predicates and Aspect*. unpublished manuscript.
- Matsui, K. (2009). *El clítico Dativo y los verbos de movimiento*. Unpublished manuscript.
- Müller, H. (2001). Spanish N de N structures from a cognitive perspective, In I. Baron, M. Herslund & F. Sorensen (Eds.), *Dimensions of possession* (pp. 169-186), Amsterdam: John Benjamins.
- Pérez Vásquez, E. (2007). Pronombres superfluos dativos benefactivos en español e italiano, In F. San Vicente (Ed.), *Estudios de lingüística contrastiva español e italiano* (pp.11-34). Bologna: Clueb.
- Real Academia Española.(RAE). (1973).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Calpe.
- Sánchez López, C. (2007). The possessive dative and the syntax of affected arguments, *Cuadernos de Lingüística*, 14, 153-73.
- Suñer, A. (1990). *La predicación secundaria en español*. Ph.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AB, Barcelona, MA.
- Szabolcsi, A. (1994). The noun phrase, *Syntax and Semantics*, 27, 179-274.
- Zabala, I. & Odriozola, C. (1996). On the relation between DP and TP: The structure of Basque infinitivals, *Catalan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5, 231-281.
- Zamparelli, R. (1993). *Aspects of a ADJP=DP=CP hypothesis*, unpublished manuscript.

**서소영**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스페인, 중남미 학과

전화: (063) 270-3279

이메일: soyoungseo@chonbuk.ac.kr

Received on June 28, 2013

Revised version received on August 23, 2013

Accepted on September 5, 2013